

정읍사랑상품권 사용기한 2년 연장

2019년 발행한 종이 상품권, 올 10월 기준 3190만원 미사용 음식점·학원 등 4700개 가맹점서 2026년 11월30일까지 사용

정읍시가 발행한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의 사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정읍시는 시민의 소중한 자산 보호와 이용 편의를 위해 2019년 발행된 정읍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2026년 11월30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읍사랑상품권은 2019년 12월에 지류(종이) 형태로 발행됐으며 발행 당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이중 올해 10월 기준 미사용 상품권은 3190만원으로 추정된다.

시의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조치다.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학원, 슈퍼 등 47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농민공익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정책수당 전용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가맹점에서 받은 지류 상품권은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한 등 환전 대행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할 수 있다.

사용 기한까지 미사용한 상품권은 전액 정읍시로 귀속돼 다음해 상품권 발행 시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박현정 정읍시 지역경제과 팀장은 "정읍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며 "상품권 소지자들은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반영을"

고창군, 영광·함평·군산·부안과 서명운동



심덕섭 고창군수가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 서명부에 사인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군산 새만금에서 부안과 고창을 거쳐 목포까지 이어지는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관련 5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호남 서해안권(영광, 함평, 군산, 부안, 고창) 5개 시·군이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해 노선 반영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고창군청에서는 관련 5개 시·군 단 재정이 한데 모여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호남 서해안권이 철도 인프라에서 차별 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그 후속 조치다.

고창군 등 5개 지자체는 2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내년 1월말까지 서명운동을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 장관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호남

정치권과 함께 공동 촉구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서명운동 참여는 군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관광지와 더불어 고창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균형발전과 서해안시대를 앞당길 서해안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서명운동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지방교부세 확보' 행정력 집중

전년비 3.4% 2조2000억 감액 보조금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지자체 자체 노력 인센티브 확대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재로 열린 지난 9일 남원시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지방교부세 안정확보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내년도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9일 남원시청에서는 최경식 시장 주재로 간부회의가 열려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공유하고 지방교부세의 최대 확보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초속에서 올해 지방교부세를 전년 대비 3.4% 2조 2000억원을 감액 교부하고 지방보조금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세입확충 등 지자체 자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반영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세입의 47%를 차지하는 교부세가 해마다 감소하고, 올해는 재추계에 따라 15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13개 자체 노력 반영 항목에 적극 대응하여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2025년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으로 신실

되는 생활인구와 저출생 대응 항목에 대해 전 부서가 지방소멸·저출생 관련 시책사업 발굴 등에 나서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항목 중 지방보조금 절감 분야 산정 때 국·도비로 확보된 보조사업마저 100% 페널티로 감액 반영해 교부세가 삭감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 지방보조

금 사업만으로 산정이 이뤄지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방교부세는 시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으로 자체 노력 개선과 보조수요 반영을 위해 남원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면서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송기순 정읍시의원 '행복나눔 봉사대상'



송기순 정읍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왼쪽)이 지난 5일 '제11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 기초의회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후 박일 정읍시장(오른쪽)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제공>

송기순 정읍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최근 '제11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 기초의회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가와 사회행복지수 발전에 공헌한 기관, 단체, 개인을 발굴해 그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송기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의원 연구단체인 '정읍 역사·문화 연구회'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 발굴과 예술 활성화에 매진했으며 농촌 주민들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숨은 봉사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송기순 의원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시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자원순환 실적 평가' 우수 기관

분리배출·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등 환경개선 분야 고득점

남원시가 '2024년 전북자치도 자원순환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전북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활용

추진 실적, 폐기물 처리 역량 등 청소 행정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 목적이다.

남원시는 분리배출 환경개선, 재활용품 분리수

거량, 위해 환경개선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2-2023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이어 이번 우수 기관 선정으로 자원순환 환경 업무의 탁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5년도에는 재활용품 보상제를 확대 실시하고 분리배출 교육을 적극 추진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립과 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